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온라인 예금중개업 도입을 앞두고...
- 이슈분석** 알파세대 겨냥한 기업들의 키즈테크
- 금융경영브리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ESG 리스크 확산 플랫폼 금융으로 바라보는 포용금융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물가압력 둔화 확인되며 하방압력 부각  
외 환 : 원/달러 환율 변곡점 통과했을까?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원 신석영(seokeyoung.shin)

#### 논단

연구위원 김혜미(hmikim)

####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김문태(kmt)  
수석연구원 정윤영(yunyeong.j)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온라인 예금증개업 도입을 앞두고...
- 04 **이슈분석** 알파세대 겨냥한 기업들의 키즈테크
- 08 **금융경영브리프**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ESG 리스크 확산 플랫폼 금융으로 바라보는 포용금융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물가압력 둔화 확인되며 하방압력 부각  
외 환 : 원/달러 환율 변곡점 통과했을까?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온라인 예금증개업 도입을 앞두고...\*

김혜미 연구위원(hmikim@hanafn.com)

금융당국이 ‘플랫폼 금융상품 증개업 시범도입 방안’ 발표에 이어 9개사의 예금상품증개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예금증개서비스가 도입된다. 예금 증개가 처음으로 허용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예금증개 도입은 예금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를 증가시켜 신용경색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금리예금으로 손쉽게 자산을 확대하려는 도덕적 해이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적정성이 높은 예금기관에 한해 예금증개 이용을 허용하고, 증개예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 플랫폼이 주요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부상

2017년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미래 은행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1)</sup> 그 중 유력한 시나리오로 미래의 은행은 상품제조 기관으로 전락하고 판매는 점점을 보유한 플랫폼이 수행한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담아 화제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기술 발달과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산업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되고, 검색엔진·메신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사가 금융업에 진입하면서 파격적이던 BCBS의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를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롭게 출현한 상품판매모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이나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행위가 금소법상 “대리·중개”에 해당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플랫폼의 상품 추천 및 설명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개”이며 특정인 대상 맞춤형 광고도 “중개”라고 설명하고 대출비교플랫폼이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소법상 대출성금융상품 대리중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간 금융상품 정보 제공, 가격 비교, 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라고 여기며 영업을 했던 일부 플랫폼사들은 금소법상 대리·중개업자 등록을 완료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디지털화로 플랫폼이 주요 상품채널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체계가 마련 중

국내에서는 금소법 시행과 함께 플랫폼 금융상품 증개업 도입 예정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Sound Practice : Implication of fintech development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 BIS, 2017

한층 강화되었다. 이어 올해 8월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플랫폼상 중개가 불가능한 예금, 보험 등의 비교추천·중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추후 제도화한다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플랫폼상의 판매 모델에 대한 제도마련을 예고하였다.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완료, 내년부터 예금중개서비스가 본격화

11월 9일 금융당국이 깃플,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사의 온라인예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서의 예금중개서비스는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플랫폼 보험중개는 보험업계나 보험설계사의 반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던 하나 카카오, 토스 등 주요 빅테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예금의 중개는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예금취급기관의 고유업무

보험과 달리 예금중개는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미허용되던 업무


보험과 예금의 플랫폼에 대한 중개 허용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보험상품 중개는 플랫폼사에게만 허용되지 않았을 뿐 그간 은행, 공제, 카드, 증권, 보험대리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보험상품 중개를 수행해왔다. 물론 각 주체별로 중개 대상의 보험상품 종류나 비중제한의 차이가 존재하여 공정 경쟁 이슈는 있지만, 현재까지 법적으로 중개가 불가능한 상품을 새롭게 허용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적금 모집은 지금까지 예금취급기관의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업무이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해설서>에서는 업무 위탁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허가나 혹은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은행 예금 등 수신업무를 들고 있다. 따라서 예금 중개는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만큼 예금중개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당국이 구상중인 온라인 예금중개업은 중개 수요가 크고 관리가 쉬운 정기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저축은행, 신탁 등 모든 예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플랫폼 등에서의 예금중개 도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금 수취나 계약 체결 대리까지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정기예·적금의 비교·추천행위만을 허용하며, 급격한 예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플랫폼상 예금 판매 비중 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예금판매 비중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한도(은행은 전년 신규모집액의 5%,

저축은행 및 신탁은 3% 수준)로 제한하고 실제 운영성과를 지켜보면서 플랫폼을 통한 모집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 ❖ 금융안정성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제도 설계 필요

하지만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특정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규모는 제한했지만 반대로 특정 은행에서 유출되는 예금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유출이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신규 대출 중단이나 기존 대출 회수 등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고금리 예금으로 쉽게 자산을 확대하고 조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는 예금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는 예금 중개인을 통해 예금을 조달하고 고위험 운용으로 파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해서 지금은 자본등급이 높은 부보예금기관만이 중개예금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예금중개업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기관들의 상품을 쉽게 비교·추천 받을 수 있으며 예금취급기관 간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급격한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안정성 훼손이나 특정 예금취급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적금이 중개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처럼 예금중개업자에게 예금 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예금취급기관을 자본적정성이 높은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유동성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고금리 예금을 통해 쉽게 자산을 늘리려는 예금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예금의 이자율을 특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금취급기관은 플랫폼사 대비 협상력이나 낮아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업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중개업자의 배생책임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판매규모에 비례한 보증금 예탁이나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만 하다. 

예금중개업 도입으로  
금융안정성 위험  
증가의 부작용 존재

자본적정성이 높은  
예금취급기관에 한해  
예금중개 이용을  
허용하고, 중개예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

# 알파세대 겨냥한 기업들의 키즈테크

김지현 연구위원(jihyunkim@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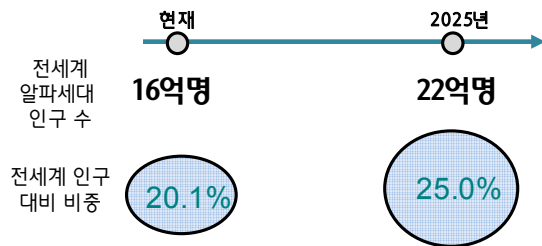
2010년~2024년에 태어난 알파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대가 될 것으로 시장 선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성인 대상의 기업들도 알파세대로 타깃을 확대하고 있으며, 알파세대의 특징에 맞게 디지털 기반의 창조와 참여의 재미가 가미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금융회사들도 이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경쟁중이며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핀테크사도 탄생했다. 국내 은행은 알파세대 전용 서비스로 대부분 교육의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알파세대’ 등장에 시장 선점의 중요성 증가

- 2010~2024년 출생자를 의미하는 알파세대는 호주의 맥크린들연구소에서 처음 정의하였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대가 될 전망
  - 알파세대는 매주 280만명씩 태어나고 이들 세대의 출생신고를 모두 마치는 2025년 22억명(전세계 인구 중 25%)에 이르러 베이비부머 세대의 규모를 추월할 전망
- 포브스는 알파세대를 겨냥한 육아, 서비스, 앱 경제규모를 약 55조원으로 추산하며 ‘새로운 맘 이코노미(The new MoM Economy)’라고 정의
  - 국내는 저출산으로 한국의 알파세대 비중이 11% 수준이며, 소수이기에 부모의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
- 부모와 양가 조부모, 삼촌, 이모까지 총 8명이 한 아이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8 pocket(8개의 주머니)’을 가진 골드 키즈로 인식






## 알파세대 인구 비중 변화 추이

가장 빠르게 알파세대가 증가하는 국가 Top 3 : 1위 인도, 2위 중국, 3위 인도네시아



자료 : UN, Wikipedia

## 알파세대의 특징

 <p>디지털 온리(Only) 세대 안전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함</p>	 <p>이미지와 영상 선호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츠에 익숙</p>	 <p>콘텐츠 제작과 소비의 주체 SNS 콘텐츠 직접 제작 및 공유를 선호</p>
 <p>메타버스, 시에 친숙 가상현실에 친숙</p>	 <p>구매 잠재력 보유 밀레니얼세대 부모의 과시적인 소비성향에 영향을 받음</p>	

자료 : KPR 인사이트 트리

[1] 알파세대: 맥크린들연구소가 알파세대의 시작을 2010년으로 정의한 이유는 아이패드와 인스타그램이 2010년 출시되어 태어나자마자 스마트기기에 노출된 세대로 기존의 MZ세대(1982~2009)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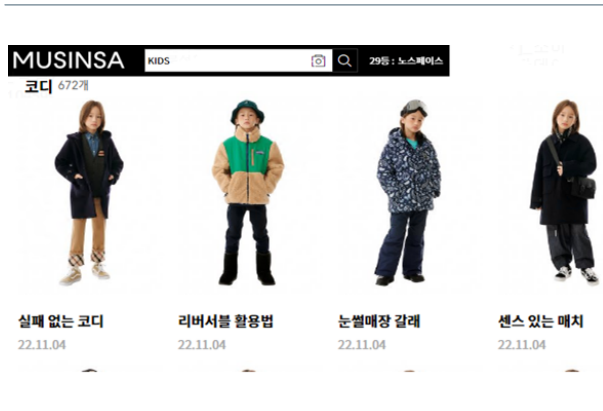
■ 이에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기업들도 알파세대로 타깃을 확장하는 추세

- (교육)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시작으로 부모의 양육과 교육, 놀이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가 늘면서 급성장했으며 온라인 클래스와 메타버스 고도화가 진행 중
  - 밀레니얼세대 부모들은 양육과 교육의 외주화에 적극적이어서 육아를 위해 유료 디지털서비스를 쓰는데 심리적 저항이 크지 않은 점도 키즈 에듀테크 시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인터넷) 네이버는 주니어네이버(유니버)를 운영하며 오디오 기반 동요와 동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통해 아이의 선택에 따라 동화내용이 다르게 전개돼 흥미를 끌면서 창의력 발달을 지원
-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키즈 전용 영상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국내는 LGU+와 SK브로드밴드, KT는 각각 ‘아이들나라’와 ‘잼’, ‘키즈랜드’를 제공하며 키즈 콘텐츠를 경쟁중
- (게임) ‘마인크래프트’와 ‘로블록스’는 신세대 게임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며, 게임 속에서 다른 게임이나 콘텐츠 제작 가능
- (유통) 패션전문 편집숍 ‘무신사’는 ‘무신사 키즈’를 런칭하고 어린이 고객에게 상황별 스타일 제안 및 신규 브랜드 소개 등을 제공
- (숙박) 숙박 예약 업체인 ‘야놀자’는 키즈 여가시장의 프리미엄 트렌드에 발맞춰 키즈 카테고리 ‘아이야놀자’를 런칭

■ 알파세대는 디지털온리 세대로 메타버스·AI에 친숙하고 글로벌 인맥과 문화를 흡수하며, 콘텐츠 제작과 소비의 주체의 특징을 보유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음

- 알파세대는 아직 어리지만 스스로 SNS환경을 만들고 신규 인플루언서를 부상시키는 등 능동적인 소비자이자 키드플루언서 활동으로 직접 돈을 버는 주체도 상당
  - 美 키드플루언서 라이언은 장난감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2018년 2200만달러 수입 기록

■ 무신사의 ‘무신사 키즈’



자료 : 무신사 홈페이지

■ 숙박 예약 앱 ‘야놀자’의 ‘아이야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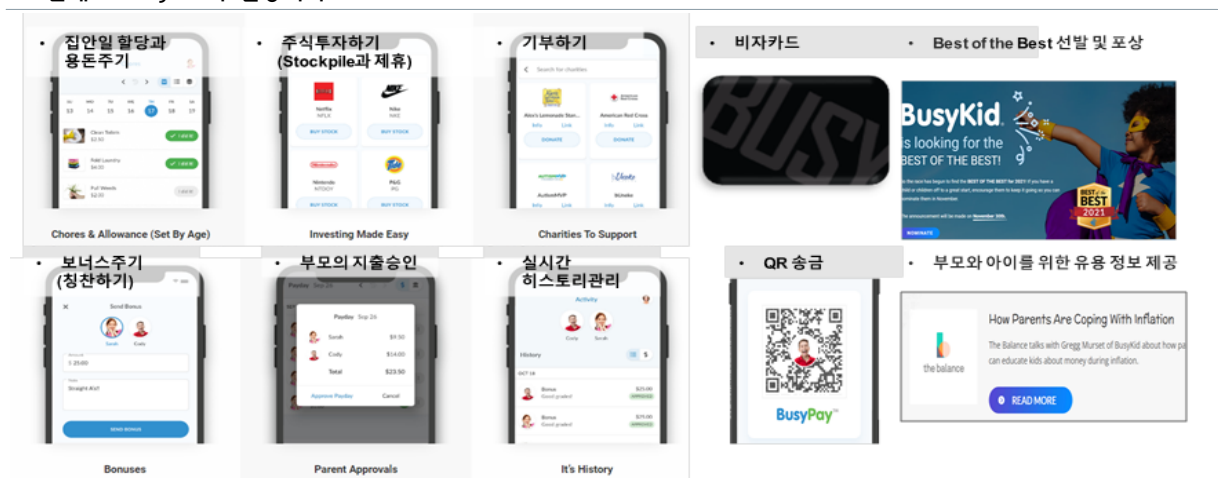
자료 : 야놀자 홈페이지

- 기술친화적이며 인터넷을 통해 가상세계에 접근해 SNS친구와 온라인 게임, 즐겨 접하는 뉴스피드,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며 전세계 문화를 흡수
-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주체적으로 아바타 생성 및 세계관을 확장해 나아가며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고, 직접 참여하며 창조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낌
- 알파세대는 가족을 가장 중시하고, 모든 인간은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환경 등을 포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중시
  -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족(71%), 행복(31%), 건강(19%), 교육(17%)을 선택, 직업은 생명을 지키는 직업(59%),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직업(51%)을 선호<sup>2)</sup>
  - 7~9세의 93%가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답변<sup>3)</sup>

■ 해외 금융사는 저축, 투자, 결제 등의 전용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며 알파세대를 타깃팅

- 해외 은행들은 용돈관리, 저축습관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불카드 발급부터 목표기반 투자, 결제, 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DBS는 160여개 학교와 제휴를 맺고 학생들에게 학교내에서 저축, 결제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를 공급해 스마트한 금융습관 형성을 장려
  - CapitalOne은 14세 이하 고객대상으로 법적보호자와 공동계좌 형태로 예금계좌와 직불카드를 발행하고, 부모는 앱을 통해 용돈지급 및 목표 보상 가능
- 핀테크의 경우 유료 구독서비스를 실시하며 전통은행보다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중
  - BusyKid는 5세 이상 어린이 대상 월 19.99달러로 용돈관리, 주식투자, 기부, 지출승인,

■ 핀테크 BusyKid의 금융서비스



자료 : BusyKid 홈페이지


[2] Wunderman Thompson(Generation Alpha)

[3] Canvas8(Who are gen Alphas?)

내역 관리, QR코드 기반 송금, 비자카드 등을 제공하고, Best of Best 선정을 통해 100달러의 보너스 지급 및 대시보드 공개 등으로 지속적인 금융활동 동기 부여

- 핀테크 Greenlight는 어린이용 모바일 직불카드, 용돈별기, 주식과 ETF 투자, 1% 캐시백 등을 제공중이며 3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뱅카루(Bankaroo)는 7세 이상 어린이 전용 가상은행으로 부모가 자상의 자금을 자녀 계좌에 설정하면 아이들은 현금 관리, 예산 수립, 비용기록, 저축 등으로 배지 수령

■ 국내도 알파세대 선점을 위해 경쟁중이나 아직 금융교육 비중이 높아 알파세대의 특징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및 마케팅 확대가 필요

- 카카오뱅크의 카뱅미니 성공 이후 국내 시중은행들은 직불카드부터 주식, 금융 지식 교육, 전용 금융 앱 등 키즈 대상 금융서비스를 출시 중
- 그러나 국내 은행은 메타버스 또는 게임형 금융교육 제공의 비중이 높은 편
  - KB국민은 ‘로블록스’내 ‘KB금융타운’ 베타버전을 제작해 가상영업점에서 대출받아 내집 마련하고 상환 및 아이템 취득으로 신용등급 지키기 미션 등 제공
  - 신한은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신한 SOLverse 메타금융스토리’를 오픈하고 아바타로 소통 및 금융지식 퀴즈 등을 진행해 게임으로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NH농협은 메타버스 내 독도를 구현한 ‘NH독도버스’를 런칭해 독도주민증 발급 및 토지 구매, 건물 신축, 낚시·농사 등의 활동에 포인트 지급해 농협 앱에서 사용 가능
- 은행 대부분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핀테크는 알파세대 대상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은행도 알파세대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가 시급
  - 미성년자 직불카드 발급 대상이 카카오뱅크 ‘카뱅미니’ 14세~18세, 신한 카드 ‘뭉’ 14세~18세, KB국민 ‘리브넥스트’ 14~18세로 Z세대 타겟 상품으로 구성
  - 하나은행의 ‘아이부자앱’은 연령 제한이 없고, 금융교육, 용돈 이체, 충전식 선불카드, 주식투자 간접체험 등 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도 이용 가능한 가족앱으로 설계
  - 토스뱅크는 카드 이용 연령을 7세로 낮추며 알파세대를 타겟 마케팅중이며, 핀테크 레몬트리 는 제공중인 금융교육영역을 향후 간편결제, 소액 주식투자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 

■ 국내 금융회사의 14세 미만 유스 전용 금융서비스

은행 명	서비스 내용					
	카드	용돈 벌이	이체	투자	온라인 결제	금융 교육
하나	O	O	O	O	X	O
KB	X	O	X	X	X	O
신한	X	X	X	X	X	O
우리	X	X	X	X	X	O
농협	X	X	X	X	X	O
카카오뱅크	X	X	X	X	X	X
토스뱅크	O	X	X	X	O	X

자료 : 각사 홈페이지

■ 토스뱅크의 유스카드



주요 금융기능

- 교통카드
- 편의점
- 1일 한도 50만원, 월 200만원
- 14세 미만 온라인 결제 불가
- 14세 이상 온라인 결제 가능
- 간편결제는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후 네이버페이 이용 가능
- 현금 충전 불가
- 자녀의 가상계좌 송금으로 충전 가능
- ATM 입금 불가
- 만 19세 이후 자동 해지

자료 : 토스 홈페이지

##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ESG 리스크 확산

김 문 태 연구위원(kmt@hanafn.com)

탄소 감축을 적극 추진 중인 애플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업체에게도 강화된 탈탄소화 전략의 수립을 촉구하고 진척도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EU에서 도입되는 공급망 실사법은 ESG 요인에 대해 공급망 차원에서 행정제재, 민사적 책임, 수정 의무 등을 부과한다. 애플, EU 등 영향력 있는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요구 강화에 따라 ESG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ESG 리스크가 강화·확산되면서 금융권에서도 이를 고려한 접근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탄소 감축을 적극 추진 중인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에 탈탄소화를 위한 변화 촉구

- 미국 시총 1위, 애플은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운영 및 투자에서 탄소 감축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도 탈탄소화 전략 강화를 촉구
- 탈탄소화 확대를 위해 애플은 제조 협력 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2030년까지 100%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 등을 요구하고, 이를 매년 추적·평가하겠다고 밝힘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Scope 1&2)에 대한 진척도를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
  - Scope1 : 기업의 직접 배출, Scope2 : 사용되는 전기, 수도 등에 따른 간접 배출
- 이는 재생 에너지 100% 대체 기간을 2050년으로 정한 국제 기업 간 협약 프로젝트,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 강화된 조치로 협력업체의 전략 수정을 야기

### ■ EU에서는 ESG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공급망 차원의 규제 법안이 곧 발효될 예정

- 유럽연합에는 이른바 ‘ESG 공급망 실사법’<sup>2)</sup>이 올해 말 유럽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2024년에 발효될 예정
  - EU 27개 회원국은 내년부터 각 국 실정에 적합한 관련법 제정이 의무화
-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 수정 의무 등을 부과
- 1단계로 대기업군(그룹 1 : 직원 500명, 매출 1.5억 유로)이 적용 대상이며, 시행 2년 후 중견기업군(그룹 2 : 직원 250명, 매출 4천만 유로)으로 확대할 계획


[1] "Apple calls on global supply chain to decarbonize by 2030", apple.com, 2022.10.25

[2] ESG 공급망 실사법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영향력 있는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의 요구 강화에 따라 ESG 중요성 확대

- 전 세계적으로 애플, EU 등 영향력 있는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의 ESG 요구가 공급망을 통해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에게 ESG 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됨
- 애플의 탈탄소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SK하이닉스, TSMC 등 200개 이상의 협력 업체가 적극 동참을 약속했으며, 향후 참여 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 EU의 ESG 공급망 실사법 발효에 따라 EU 역내 기업 중 그룹1에는 9,400개 기업, 그룹2에는 3,40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
  - EU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약 4천개 추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
  - 중소 기업, 역외 활동 기업은 직접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사법 적용 대상 기업에 납품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ESG 리스크가 강화 및 확산되면서, 금융권에도 이를 고려하여 기업 여신 관리 및 운영 방식에 ESG 기반의 접근 방식을 확대할 필요

- ESG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효율성 위주로 설계된 공급망이 ESG 관점에서 재편될 전망
- 국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참여 중인 대기업과 이들에게 납품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공급망 ESG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
  -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협력사가 애플의 탈탄소화에 영향을 받게 되며, EU 공급망 실사법은 EU 진출기업 및 협력업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용됨
- 국내 금융권에서도 기업 여신의 안정성 제고 및 ESG 가치 경영을 위해 산업 및 개별 기업의 ESG 활동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확대할 필요
  - Negative 및 Positive 스크리닝, 기존 방식과 통합, 규범 적용 등을 활용 

■ 국내 기업 중 주요 애플 협력사

부품 명	기업 명
메모리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	삼성전자, LX세미콘
카메라 모듈, 3D ToF	LG이노텍
배터리셀	삼성SDI, LG화학
카메라모듈용 브래킷	덕우전자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	자화전자
경연성회로기판(RFPCB)	비에이치, 영풍전자

주 : 2021년 회계 연도(2021.10~2022.9) 기준  
 자료 : 애플, THEELEC

■ EU 공급망 실사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 기준	예상기업수
역내	그룹1 - 근로자 500명 초과 - 글로벌 연매출 1.5억유로 초과	9,400개
	그룹2 - 근로자 251~500명 - 글로벌 연매출 4천만유로 이상 - 순매출 50% 이상이 고위험산업에서 발생	3,400개
역외	그룹1 - EU 내 연매출 1.5억유로 초과 - EU 내 연매출 4천만유로 이상	2,600개
	그룹2 - 순매출 50% 이상이 고위험산업에서 발생	1,400개
그 외	- 적용 대상 협력 업체는 간접적인 영향	

주 : 고위험 산업 - 섬유, 의류, 광물, 농림수산업 등  
 자료 : KOTRA(일부 수정)

## 플랫폼 금융으로 바라보는 포용금융

정윤영 수석연구원(yunyeong.j@hanafn.com)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금융서비스의 효율성과 확장성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며 포용금융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지급결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로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경쟁적 유입으로 타겟층이 세분화된 선진국의 경우 금융서비스의 효율성을 강조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외 계층이 새로운 타겟층으로 부상하는 만큼 국내 금융사들도 지리적·재정적 측면에서 포용금융 제공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네트워크 및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가져오는 금융서비스의 “효율성”과 “확장성”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며 금융접근성 확대에 기여<sup>1)</sup>
  - (효율성)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고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낮은 플랫폼 금융의 특성상 비용절감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고정비: 알고리즘,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 등의 초기 개발비용을 의미
    - 변동비: 고객 1인당 계좌개설 비용, 대출 심사비용 등을 의미. 디지털 채널의 경우 직원이 대면채널로 손님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어 변동비를 낮출 수 있음
  - (확장성) 플랫폼 금융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단시간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어 금융불균형 해소에 도움
    - 물리적 제약이 적고 양방향 네트워크로 플랫폼 참여자간의 니즈에 따라 효율적인 매칭이 가능하여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 가능
- 농촌지역이 많고 지역간 격차가 커 금융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지급결제 및 생활금융 플랫폼 등의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금융접근성이 확대
  - (인도)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플랫폼과 기존 금융기관의 공공 인프라와의 결합을 통해 거래 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 비율(인도 성인 기준): ‘08년 10% → ‘19년 87%
  - (중국) 정부의 금융통합 정책 지원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결제, 대출, 보험 및 저축 상품 등을 제공하게 되면서 SME의 금융접근성이 향상
    -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 등의 모회사 활동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제공

[1] "Platform-based business models and financial inclusion", BIS, 2022.01

■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핀테크 기업의 경쟁적 유입으로 타겟층이 세분화되면서 금융소외 계층에게 자산관리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

- (영국) 오픈뱅킹 도입 이후 금융소외 계층의 소득 및 지출 습관을 분석하여 투자, 저축 등의 효과적인 자금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핀테크기업이 등장
  - (Plum) 개인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여 소득, 지출,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적절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저축 어플
  - (Moneybox) 상품 구매 시 물건 가격을 자체적으로 반올림하여 결제하게 한 후 거스름돈을 모아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
  - (Wagestream) 급여의 일부를 필수지출에 자체 할당하여 소액대출의 번거로움 축소
- (미국) 현금흐름 관점의 비금융 데이터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금융이력부족층(Thin-filer)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비은행 금융서비스 제공업체가 등장
  - (Kabbage, LendUp, Petal)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대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금융 발전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타겟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들도 지리적·재정적 포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고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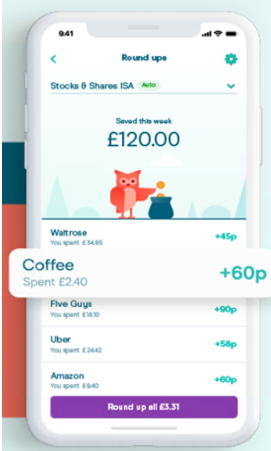
- 디지털 포용금융의 핵심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와 규모의 경제 달성인 만큼 은행 및 비은행간 데이터 공유가 중요
- 점차 오프라인 채널이 축소되고 경기침체와 소득불균형으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금융소외 계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신흥국의 금융접근성 확대 사례

	주요내용
인도	정부주도로 디지털 ID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급결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한 후, 은행과 결제플랫폼과의 경쟁적 관계를 형성시켜 모바일 금융서비스 보급률을 높임 - Google Pay, PhonePe, WhatsApp Pay
중국	Ant Group, Pinduoduo, Meituan, JD.com 등의 결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 기존의 플랫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규모 기업의 신용공급 확대에 집중 - Yu'eobao, Licaitong 플랫폼을 통해 MMF 서비스 제공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Mercado Libre)에서 저신용자 대출 제공
필리핀	디지털화로 신규계좌 개설비용이 감소되면서 플랫폼에서 원격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수가 증가
인도네시아	Grab 및 Go-Jek과 같은 차량 호출앱을 이용하여 리테일 사용자에게 대규모 결제 및 기타금융 서비스를 제공
페루	정부가 전자지갑 플랫폼(Billeteria Movil)을 운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와 농촌지역 소외계층의 격차를 축소

자료 : BIS

■ MoneyBox(영국)의 소액투자 서비스



잔돈을 저축하고 투자 하세요

신속하게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1)부터 시작하세요

연금, 저축, ISA 등 다양한 계좌에서 투자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방식대로 저축과 투자를 결정하세요

자료 : MoneyBox 홈페이지

## 금리: 물가압력 둔화 확인되며 하방압력 부각

윤 석 진 연구원(sjyun826@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 FOMC로 상승하다 美 10월 CPI 예상치 하회 영향으로 반락했다. 국내금리는 근원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크레딧시장 관련 적극적 조치와 미국 물가압력 둔화 확인에 따른 대외금리 하락세에 연동돼 하락했다. 11월 FOMC는 성명문을 통해 인상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연준 의장의 최종 기준금리 상향 언급 등에 매파적으로 해석되었다. 국내금리는 물가 경계감 완화 및 최근 환율 안정세 등에 따른 국내외 긴축 완화 기대로 하방압력 부각될 전망이다.

### ■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 FOMC로 상승하다 美 10월 CPI 예상치 하회 영향으로 반락

- 美 9월 근원PCE물가는 오름세가 확대(8월 4.9% → 9월 5.1% YoY)되었으나, 10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발표 7.7%, 예상 7.9%, 9월 8.2%)하며 물가 우려 완화
- 10월 美 고용은 비농업 취업자수 예상치 상회하고 시간당 평균임금이 높은 상승률 이어가며 여전히 견고하나, 실업률 상승(3.5% → 3.7%)은 채권시장에 긍정적
- 11월 FOMC의 경우 파월 발언 등이 매파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영국과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는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며 주요국 긴축강도 완화 가능성 대두
  - 특히, 영란은행 총재는 최종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언급했으며 호주RBA 부총재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기다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
- 美 금리는 매파적 FOMC 이후 상승하다 암호자산 시장의 유동성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및 10월 CPI 예상치 하회 등의 영향으로 반락
  - 美 국채 2/10년물 금리(%) : 10.27일 4.29/3.93 → 11.3일 4.73/4.15 → 10일 4.32/3.82

### ■ 국내금리는 근원물가 상승세에도 당국의 시장 안정 노력 및 대외금리 연동 등으로 하락


- 국내 10월 CPI는 5%대 상승세 이어간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 폭은 전월대비 확대
  - 국내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 (% YoY) : 9월 5.6/4.5 → 10월 5.7/4.8
- 한편,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 발표로 시장 불안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RP 자금조달을 통한 콜옵션 행사로 계획을 정정함에 따라 우려 완화
- 국내금리는 근원물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크레딧시장 관련 적극적 조치 및 통화정책 완화 기대, 美 물가 둔화에 따른 대외금리 하락세에 연동되며 하락
  - 국고 3/10년물 금리(%) : 10.28일 4.11/4.17 → 11.3일 4.16/4.20 → 11일 오전 3.80/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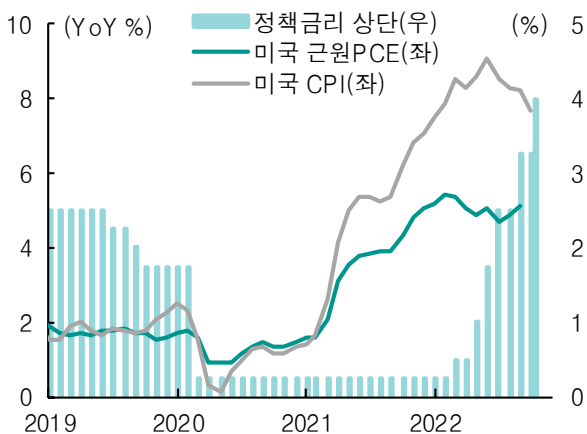
■ FOMC,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고 향후 회의에서 정책 속도조절 시사

- 11월 FOMC,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자이언트스텝(75bp) 기준금리 인상 4회 연속 단행(목표상단 3.25% → 4.0%, 만장일치 결정)
  - 이번 인상 결정으로 美 기준금리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4%대 수준으로 진입
  - 양적긴축(QT)은 9월부터 진행된 규모(매월 최대 \$950억)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지속
- 11월 FOMC성명서에는 “향후 인상속도 결정 시 긴축정책의 누적효과 및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금융 동향을 고려”한다는 문구 추가
  - 해당 내용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
- 다만, 파월의장은 인상 속도보다 최종 금리수준(how high) 및 지속기간(how long)이 중요하며, 최종 금리 수준은 기존 전망 대비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
  - 금리인상 중단에 대한 논의도 매우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는 등 매파 스탠스 재확인

■ 국내금리는 美 물가압력 둔화 확인에 따른 국내외 긴축 강도 완화 기대로 하방압력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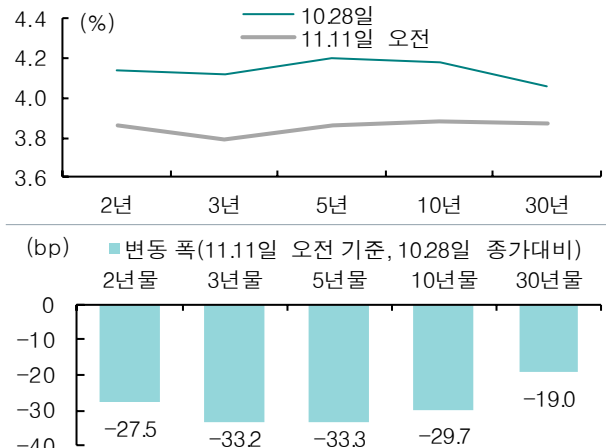
- 美 금리는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및 10월 CPI 호조로 인한 물가 경계감 완화에 따라 대기매수세 유입되는 등 당분간 하방압력 우세할 전망
- 11월 금통위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환율 안정흐름 및 신용채권시장 위험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 축소(25bp) 가능성 증대
  - 신성환 금통위원의 신흥국 과잉긴축 우려 발언 등 비둘기파적 의견이 강화될 전망
- 국내금리는 美 10월 CPI 상승률 둔화 확인 및 영란은행, 호주중앙은행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등에 주목하며 국내외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하방압력 부각될 전망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6%~4.0%, 3.7%~4.05% 범위로 전망 

■ 미국 정책금리 및 CPI 추이



자료 : Bloomberg

■ 국고채 만기구간별 시장금리 변동



자료 : Bondweb

## 외환: 원/달러 환율 변곡점 통과했을까?

오현희 연구위원(hyunheeoh@hanafn.com)

원화는 위험선호 회복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중국의 방역완화 및 리오프닝 기대 등으로 강세압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달러화 약세에 연동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로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면서 달러화의 초강세 국면은 진정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압력, 중국 및 유럽 관련 리스크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 [원/달러 환율] 달러화 약세 속 중국발 혼풍으로 1,300원대 안착

- 11월 FOMC에서 연준의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75bp) 단행과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 등으로 달러화가 재차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를 지속
- 이후 美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가 약세 전환되고 中 리오프닝 기대로 대중수출 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화 강세 압력 증대
  - 원/달러 환율은 1,360원(11.9일 장중) 기록, 연고점 1,440원(10.24일) 대비 80원 하락
- 특히 11일 발표된 미국 CPI가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달러화가 큰 폭의 약세를 시현하자 원/달러 환율은 1,350원 하회

### ■ [국제 환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달러화 강세흐름 약화

- 달러화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과 매파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중간선거 기간 중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 고용 및 물가지표 둔화 등으로 주요통화 대비 약세
  - 10월 신규고용은 26.1만명 증가하여 전월(31.5만명)보다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높은 3.7%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긴축완화 가능성 대두
  - 10월 CPI가 전년동월대비 7.7% 상승(4개월 연속 둔화)하여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달러화지수 큰 폭 하락(11.11일 장중 107.7 기록)
- 엔화는 FOMC의 영향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총재가 채권수익률 곡선 통제정책(YCC)의 유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세흐름
- 위안화는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약세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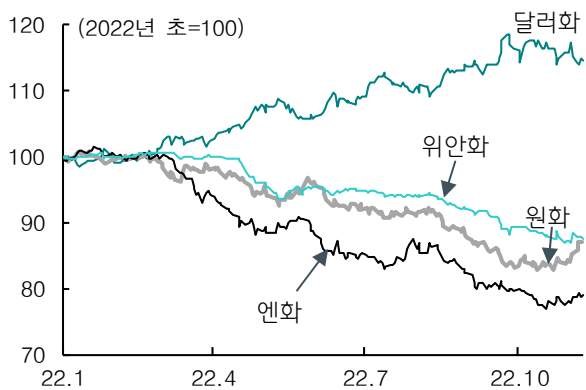
■ 대내외 우호적 요인에 따른 환율 하락에도 방향성 전환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및 미 중간선거의 공화당 승리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위험선호 회복, 달러화 약세 전환
  - 또한, 중국이 자국내 외국인에게 외국인산 백신 접종을 허용한 가운데 방역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위험자산 선호현상 확산
- 대내적으로는 무역적자 확대(9월 -38억 달러→10월 -6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측면 불안심리 완화
  -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가운데 중국 증시 위축의 반사효과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외국인 주식 순매수(조원):22.1~9월 -16.8→10월 3.0→11월 2.0)
- 다만, 달러화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견실한 가운데 중국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방향성 전환은 시기상조
  - 주요국 CPI가 고점대비 둔화되었으나 물가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며, 미국과 주요국간 성장격차도 여전히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달러화 강세 지속 가능
  - 시장에서는 中 봉쇄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방역당국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전까지는 관련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 달러화 초강세 국면은 진정 양상이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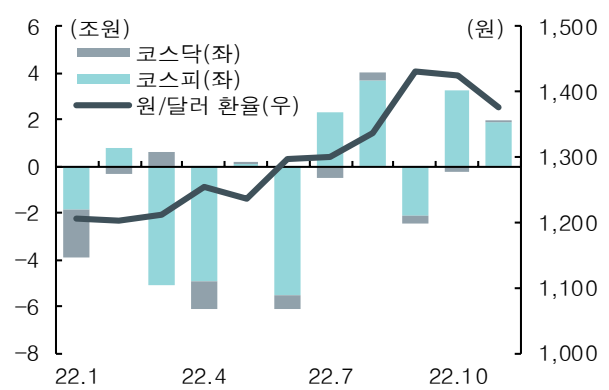
- 미국 물가지표 둔화로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가 낮아지고 통화정책 속도 조절 기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화 초강세 국면은 진정될 가능성
- 다만, 높은 에너지가격에 따른 인플레이 상방압력, 中 방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겨울철 유럽발 에너지리스크 등이 여전히 상황으로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유의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중국의 정책변화,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주시하며 1,320~1,390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연초대비 주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순유입과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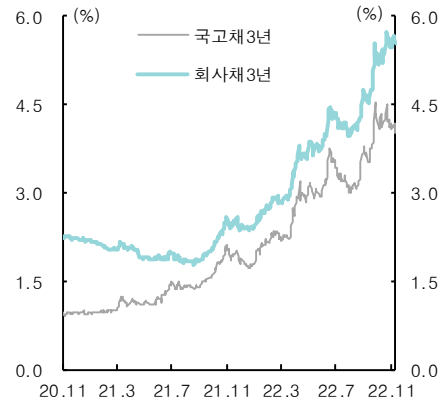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거래소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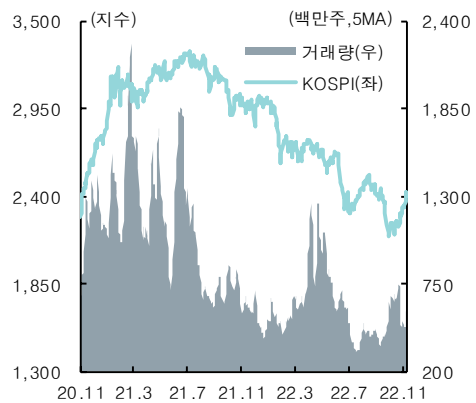
###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10월말	3.19	3.96	4.79	5.58	4.19	4.26
11월 4일	2.99	3.97	4.92	5.59	4.12	4.20
11월 7일	2.98	3.97	4.97	5.66	4.19	4.28
11월 8일	2.99	3.97	4.98	5.64	4.16	4.26
11월 9일	2.99	3.97	4.96	5.59	4.09	4.18
11월 10일	3.09	3.97	4.97	5.55	4.03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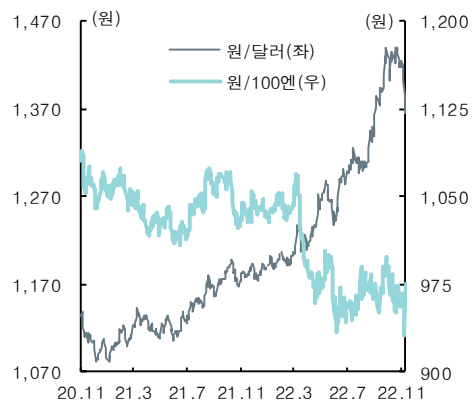
###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10월말	2,293.6	86,793	401	2,321
11월 4일	2,348.4	79,273	436	414
11월 7일	2,371.8	80,599	393	1,100
11월 8일	2,399.0	86,015	500	2,824
11월 9일	2,424.4	93,427	681	4,172
11월 10일	2,402.2	93,444	899	-1,098



###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10월말	1,424.3	957.9	195.0	1,407.6
11월 4일	1,419.2	967.6	197.5	1,413.4
11월 7일	1,401.2	955.8	193.8	1,403.6
11월 8일	1,384.9	951.0	191.0	1,394.8
11월 9일	1,364.8	931.4	188.4	1,366.2
11월 10일	1,377.5	975.4	191.7	1,4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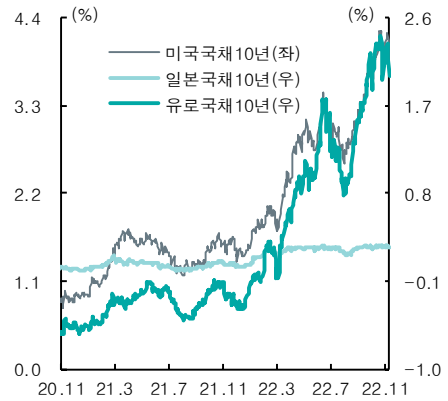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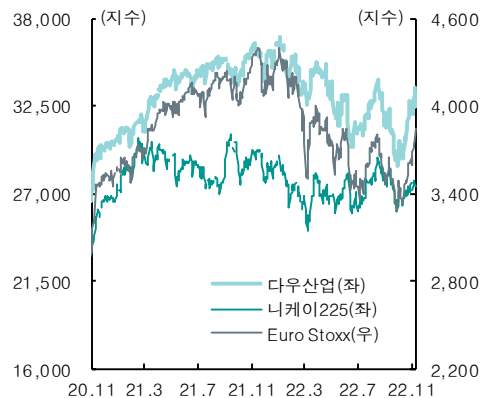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유로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10월말	3.08	4.46	4.48	4.05	0.25	2.14
11월 4일	3.83	4.55	4.66	4.16	0.26	2.30
11월 7일	3.83	4.56	4.72	4.21	0.26	2.34
11월 8일	3.83	4.59	4.65	4.12	0.25	2.28
11월 9일	3.83	4.63	4.58	4.09	0.25	2.17
11월 10일	3.83	4.65	4.33	3.81	0.25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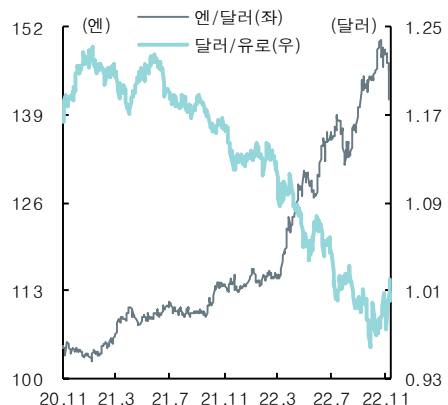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10월말	32,733.0	27,587.5	2,893.5	3,617.5
11월 4일	32,403.2	27,199.7	3,070.8	3,688.3
11월 7일	32,827.0	27,527.6	3,077.8	3,708.8
11월 8일	33,160.8	27,872.1	3,064.5	3,739.3
11월 9일	32,513.9	27,716.4	3,048.2	3,728.0
11월 10일	33,715.4	27,446.1	3,036.1	3,846.6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10월말	148.65	0.988	90.6	1,640.7
11월 4일	146.65	0.996	92.3	1,676.6
11월 7일	146.60	1.002	92.9	1,680.5
11월 8일	145.63	1.007	92.3	1,716.0
11월 9일	146.52	1.001	89.8	1,713.7
11월 10일	141.22	1.020	87.2	1,753.7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2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2년 11월 11일 인쇄

2022년 11월 14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2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